

# 호주 퍼스에서 열린 아시아 양봉총회를 돌아보고

한국양봉농협협동조합  
조상균 조합장

3.22 ~ 25일까지 호주의 서남쪽 도시인 퍼스에서 열린 8회 아시아 양봉총회를 맞이하여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양봉조합 이사이신 김승훈, 윤성복, 호문식, 김흥기, 김용래 이사를 비롯한 다섯분과 양봉협회 황협주 부회장과 손재형 실장, 인천공장에 근무하는 조병근 직원을 포함하여 9명이 같이 다녀왔다.

농업생물부 김영수박사, 우순옥박사도 같이 참석하여 발표회도 가졌고 청진테크 김철구사장이 전시장을 하나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위상도 올렸다. FAO농산업팀장이신 이주호 박사님도 참석하여 발표회를 가졌고

개막식에는 서호주의 농림부장관이 참석하여 꿀벌이 화분매개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하면서 아몬드 재배면적 1에이커에 벌 2통이 필요하며 55만 에이커 정도면 100만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회의장 참석인원은 약 20여 개국에서 200명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전시장은 10개 미만의 업체가 참가하였는데 호주에서 전시한 것 중에는 한 곳은 플라스틱 소초광과 한 쪽은 꿀제품을 가지고 나왔으며 우리나라에서 봉독채취기를 가지고 가서 인기를 끌었다. 차기 회의는 북경에서 2008년도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회장도 그 동안 일본의 마스카교수가 맡아 왔는데 태국의 왕수리박사가 피선되었다.

호주 갈 때는 홍콩을 경유하였는데 홍콩까지 약 3시간, 홍콩에서 퍼스까지 8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고 올 때는 시드니에서 홍콩까지 약 9시간이 걸렸다.

호주의 총 인구는 약 2,000만명 정도이며

서호주의 인구는 약 200만명 정도가 사는데 서호주의 도청 소재지인 퍼스에 약 16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호주 인구의 대부분이 이곳에 몰려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호주의 면적은 769만 2208km<sup>2</sup>로 남북한 면적의 35배정도로 동서의 길이가 4,000km가 넘고 남북이 3,000km가 넘어 동과서의 시간차이가 3시간이나 나는데 퍼스에서 시드니까지 비행시간만 4시간이 소요되는데 제주도까지 1시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호주는 산이 없는 광활한 평야지역이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적도에 가까워 대부분 강수량이 적어 나무와 곡식이 자라기 좋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시드니 쪽 즉, 동남부 지역이 강수량도 많아 농토가 많고 사람도 이곳 지역에 주로 몰려 살고 있었고 숲도 우거져 있음을 볼수가 있었다.

퍼스의 해변가 동네인 후리멘탈이란 곳은 영국인들이 배타고 호주에 처음 입성한 지역이며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내륙 쪽으로 강을 끼고서 시내가 형성되었다.

퍼스는 강을 끼고 있으며 강가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두어 공원이 잘 되어 있고 강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현지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곳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다섯 번째 안에 든다고 하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변 옆에 전경

이 좋은 곳이 땅 가격이 비싼 편이었으며 한국인 교민은 시드니에 10만명 퍼스에 약 4,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였다.

아침에 산책하는데 공원에서는 잉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지저귀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지 않나 생각 되었으며 강에는 큰 천연 기념물인 흑고니나 오리 또는 갈매기가 사람 있는 가까운 곳까지 유유히 물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시내나 시외의 가로수는 유카리투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유카리투스나무의 종류가 500종류가 넘는데 이중에 200여 종류가 밀원수로서 꿀이 난다고 하며 종류마다 화기나 꽃의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다고 하였다.

무슨 종류의 유카리투스나무인지는 모르나 붉나무꽃과 약간 흡사하게 생겨 흰색이 만개가 되어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벌이 상당히 많이 붙어서 역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퍼스 인근의 관광지로는 500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모래언덕이 가까움에 있어서 들러 보았고 170km정도 떨어져 있는 남봉국립공원 안에 있는 피나클이라고 하여 땅속에 여러 모형의 돌이 있는 곳이 바람이 불어서 흙이 다 날아가다 보니 1~2m정도 크기의 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가 보았는데 사막 비슷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먹을 것이 없어 그런지 파리 떼가 극성을 부려 얼굴에 계속 끈질기게 달라 붙음을 볼 수가 있었다.

가는 길목에 꽃송이가 우리나라 잣송이만한 연한황색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서 차를 세우고 관찰해 보았는데 꽃도 오래 피게 생겼고 벌도 와서 잘 역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좋은 밀원수가 아닌가 하여 기념 사진 촬영도 하였다.

행사장에서도 이곳 양봉인들이 이 꽃을 꺾어서 밀원수로서 전시를 해 놓고 이 밀원에서 생산된 꿀도 전시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뱅크시아라는 좋은 밀원수임을 알았다.

호주는 외국의 양봉산물을 일절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양봉산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나라에서도 일절 전시를 하지 않았다.

수개월 전에 수출을 해서 검역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니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다 보니 다른나라 에서의 행사보다는 전시품 자체가 단조로운감이 들었다.

행사장에서 한국 교민이면서 호주양봉가와 결혼하여 사는 여자 한국인을 만나서 이곳의 양봉실태를 알아보았는데 남편이 약 900군 정도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타스마니아에서 산다고 하였다.

타스마니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라고 하였다. 호주는 양봉농가 약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200~1,000군 정도 기르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며 5,000군 이상 기르는 사람은 2명이 있다고 한다. 이 중 1,000명 정도가 전업양봉인이라고 하며 총 사육군수는 50만군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타스마니아는 호주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인데 남극에 가깝다 보니 이 나라에서는 역으로 제일 추운지역이 되어서 겨울에 추울 때는 0도 정도 떨어지고 눈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그 동안 수입되었던 호주벌이 추위에 약해서 월동성적이 부진한 것이 단점이었는데 호주는 겨울에도 10도 이하가 안 떨어진다고 하니 유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우리나라와 기후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타스마니아에 있는 잉글리쉬블랙비라는 종류는 잡종으로써 추위에 강한 품종이라고 하여 과거에 이러한 벌이 들어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곳에도 카니올란 종이나 코카시안종도 있는데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종

만 못하다고 하였다.

호주에도 스몰아이비트(밀빠진 딱정벌레) 아메리카 부저병, 유럽부저병, 노제마병이 약간씩 있다고 하며 발병하면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고 하였다.

딱정벌레는 서호주나 타스마니아에는 아직 없다고 하며 시드니쪽 동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내륙에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지역에 이동해가면 42℃정도 기온이 올라가면 딱정벌레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호주 내에서도 꿀벌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병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는데 타스마니아에서 본토로 꿀 따러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타스마니아로 다시 가지고 들어 갈 수는 없고 아예 다 팔아버리고 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 곳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 꿀을 팔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드니에서는 허정민씨와 사위인 정윤철씨가 호텔에 찾아와서 만나 약 두시간정도 호주의 양봉실태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 원래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다가 3년만에 호주로 들어와 90년부터인가 양봉협회와 연락하면서 호주 꿀벌을 한국에 파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며, 현재는 꿀벌 300여군을 기르면서 시장에 꿀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한국인 선물가게 등에 꿀을 소분 포장하여 납품하고 있었는데 에덴(Eden)양봉원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었다.

호주의 밀원종류는 유카리투스 종류가 약 70%를 차지하며 걸쭉리, 자라나무, 메리츄리, 레드검, 화이트검, 뱅크시아, 유채, 패트슨, 스트릴박, 오렌지, 크로바, 레더우드, 옐로우박스, 아연박 같은 밀원이 주 밀원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유카리투스 일종인 레더우드꿀은 부드러우면서 약용으로 좋다고 소문나 있어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옐로우박스 밀원은 내륙지역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아연박 밀원도 내

륙지역에 주로 있는데 개화기간이 1 ~ 2개월가며 3 ~ 4단까지 꿀이 찬다고 하였다.

봄에는 유채가 있는데 주로 동남부 쪽에 분포하며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패터슨스커스밀원이 내륙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3 ~ 4개월 정도 가며 분홍꽃이 피는 사료작물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목장이 많은 곳에 있지 않나 생각되었다.

유카리투스의 일종인 아연박이나 그 밖의 유카리투스 종류도 주로 해안가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꿀들어오는 양은 유채와 패터슨밀원에서 6단까지 가능하며 스트링리박은 크리스마스 지나서 개화하는데 2 ~ 3단까지 꿀이 들어오는 편이다.

허정민씨 말에 의하면 이동을 세 번정도 하면 10단 정도까지 올릴수 있으며 채밀량은 통당 200kg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서호주에서 만난 양봉인들한테 물어 보았을 때는 1년 생산량이 통당 100k정도가 되며 잘 뜨는 사람은 200kg정도 까지 생산한다고 하였다. 유카리투스 밀원은 해결이를 하는데 2 ~ 3년에 한번정도씩 꿀이 난다고 하는데 나무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채밀하는 것은 해결이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봉장 견학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곳에 약 30군정도 배치되어 있으며 벌통이 바닥에 화분 채취기가 아예 붙어 있었고 출입구를 통하여 벌이 들어가서 채분기를 아래서 위로 통과 하면서 바닥으로 화분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화분을 채집하지 않을 때는 통과하는 판이 합석같은 철판이라서 이를 소문 아래나 윗 쪽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썰기를 양쪽에 끼워서 조절 하도록 하고 있어 화분을 받고 싶으면 철판을 위로 올리고 안 받들려면 아래로 내리면 되게 되어 있다. 사양은 1년에 군당 약 설탕 40kg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꿀이 잘나는 지역인 것을 감안 할 때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구 파는 곳과 꿀 소분 공장도 견학 하였는데 기구파는 곳에서는 벌통과 소초도 직접 제작하면서 모든 양봉기구를 판매하고 있었다. 양봉관리

책자도 팔고 있었고 소초 붙이는 기구도 팔고 있어 기념으로 하나 사가지고 왔다. 인상 깊었던 것은 작대기 같은 곳에 소비가 한 장 들어가게 한쪽은 합석을 대주었는데 가운데가 소비와 떨어지도록 공간이 되어 있어 소비에서 꿀이 나와서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철사로 몇 줄 망처럼 쳐져 있고 아래에 꿀이 고일 공간이 있고 위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꿀을 아래에 고이면 거꾸로 따라내는 부위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곳에 소비를 한 장 넣어서 돌리고 다시 바꾸어 넣고 돌리는 형태의 채밀기 임을 알아서 팔으라고 하였더니 전시품이라고 하여 팔지는 아니 했는데 영국인들이 호주에 처음 와서 양봉할 때 채밀기가 없다보니 처음에 만들어서 쓰던 채밀기가 아니었나 생각 되었다. 화분건조는 생화분을 가져다 철망위에 화분을 10cm 정도 올려 놓고 아래 공간을 통하여 열풍기로 서서히 열을 가하여 42도까지 열을 주어 약 30시간 정도 바람으로 말리고 있었으며 이를 잘 선별하여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충 때문에 판매할 때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는데 잘 건조 시켜서 냉동창고에서 영하 18도에서 5일정도 보관했다 꺼내면 소충알이 죽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벌 가격은 2 ~ 3단 한통에 150 ~ 200불정도 한다고 하며 벌통 재질은 뉴질랜드 소나무가 많다고 한다.

서호주나 남호주에서는 벌들이 소가 먹는 물에 가서 물을 물어 오다 보니 소가 쏘일 수 있어 벌한테 물을 범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며 기구상에 급수기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병에 물을 넣어 거꾸로 꽂아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것 보다는 구조나 모형이 뒤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장수말벌은 호주에는 없으며 타스마니아에서만 약간 피해가 있다고 하였다.

타스마니아에서 꿀 가격은 1kg에 2 ~ 3불 정도를 하고 있는데 레더우드꿀이 4불 트라이버터나꿀이 3.5불이라고 하였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는 양봉학과가 있다고 하며 우량여왕벌은 이곳에서 인공수정하여 한 마리에 400~500불에 팔고 있으며 여왕벌을 길러서 파는 사람들이 우수여왕벌을 사가지고 와서 이층 하여 여왕벌을 길러서 판다고 하였다.

여왕벌을 길러서 파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1년에 1,500마리 정도 교미 또는 인공수정 하여 호주와 외국으로 팔고 있는데 1마리에 15~20불 정도 받는다고 하였다. 호주 양봉인들의 이동은 5t 장축정도 차에 크레인차로 한 번에 벌통을 4개씩 다이를 만들어 들어 올리게끔 만들어서 출입구도 소비 옆면 쪽이 아닌 소비 전면쪽으로 출입구를 내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벌통 옆면이 출입구가 달려 있는 형태인데 그대로 벌을 내려 놓게 되면 출입구가 앞을 보게 만들어져 있었고 현장에서는 계상에 4~5단 올린 것이 꿀이 차서 봉개가 다하면 벌을 털고 창고 있는 곳으로 운반하여 창고에서 예열을 하여 자동 밀도기와 채밀기로 채밀을 하고 있었다.

봉개가 소비 전체가 되어 있다 보니 사람 손으로 밀도를 할 수가 없어서 자동 밀도기로 깎아서 자동으로 소비가 옮겨가면 채밀기가 옆에 붙어 있는데 뚜껑을 열고 유압으로 한 곳에 30장씩 밀어서 넣고 돌리면서 네 가운데에 넣으면 한번에 120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많은 군수를 관리하는 양봉경영을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 밀도기와 채밀기가 붙은 것 한 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0 ~ 3,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였다.

호주는 인건비가 비싼 관계로 로얄제리 생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한 두 사람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비싸던지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호주산이라고 하여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전부가 중국산이 둔갑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중국것과 국내산과의 절반정도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호주에서 제일 높다는 블루마운틴을 갔는

데 해발 1,000m정도 된다고 하는데 마침 비가 와서 정경을 잘 바라 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산과 비교 했을 때 산 같지 않고 편편한 언덕같은 감이 들었다.

이곳에도 유카리투스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김대진이라는 평창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양봉을 하다 77년에 이민 와서 양봉을 1,800통까지 경영하면서 330드립까지 채밀 하였는데 그 당시 꿀 한드림 가격이 250불정도 하였다고 하며 지금은 800불정도 하는데 오렌지 꿀은 1,800불 정도 한다고 한다(호주달러는 715 원정도 함)

땅은 넓다고 하나 밀원이 좋은 곳은 대부분 현재 양봉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한 장소에 밀원이 좋은 곳은 100군정도 배치하고 보통은 30~50군 정도씩 나누어 배치한다고 한다.

좋은 밀원 하나 사는데도 약 800불 정도 주고 산다고 한다.

호주는 천혜의 양봉국가가 아닌가 생각되었고 정부나 공항에서도 양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토가 넓고 밀원이 좋다보니 통당 평균 벌꿀 생산량이 2005년도 FAO통계로 44kg정도 이며 총 생산량이 16,000t정도 되고 있어 세계 에서도 생산량이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까시나무 같은 밀원은 없었으며 유카리투스 밀원에서 나온 꿀이나 그 밖의 밀원에서 나온 꿀들도 맛은 별로였다.

자원은 풍부하여 석탄 생산량이 세계 1위이고 역천탄 이라고 하여 품질은 좋은 석탄인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으며 금 생산량이 세계1위, 알루미늄 생산량도 세계 1위, 철 생산량이 세계 3위나 되고 오파이라고 하는 보석이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땅도 넓지만 풍부한 자원 국가임을 알 수가 있었다. 평야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차도 힘이 덜 들게 되어 그런지 화물차도 한 번에 덤프 두 대를 달고 다니는 차를 가끔 볼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땅은 좁지만 사계절이 뚜렷하고 토질이

나 기후가 좋아 64%가 임야로 되어 있는 곳에 밀원만 많이 심는다면 우리나라가 더 양봉하기 좋은 나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내년에는 시드니 남쪽 멜번에서 세계양봉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뜻있는 양봉인들은 이때 방문한다면 호주의 양봉실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시드니는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춘 항구인 것을 느꼈고 세계에서 아름다운 3대 미항의 하나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돌아보니 정말 아름다운 항구인 것을 느꼈다. 한쪽에 세워져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설계한 사람이 조개껍질을 연상하여 설계하였다고 하는데 시드니의 명물로 세계여행객들이 들르는 명소가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에서나 배를타고 바라 볼 때 아름답게 느껴졌다. 역시 좋은 명작의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서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예술성 있는 건축물인 한옥도 다 헐고 양옥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잘 보존시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 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과거 정부의 문화정책당국자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나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프랑스를 가보았을 때도 대통령을 그만두면 오래 남을 기념물을 만들어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명품의 건축물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코스가 될 정도의 작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되리라 생각된다. 서울 북촌에 있는 한옥촌 보존이야 말로 진작 보존 되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세계양봉총회나 아시아양봉총회를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의 국력이나 우리나라의 양봉기술이나 사육규모로 볼 때 대회를 한 번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차차기 정도의 아시아 양봉총회, 더 나아가 세계양봉총회 유치를 목표로 우리 양봉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추진해 봅시다.